

(미국)국가 형제회의 목표

우리들의 추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 중의 하나는 형제회가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할 일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우리는” 형제회의 도움을 받으며” 하고 서약했다. 지구형제회 방문 시, 비영어권 형제회의 자매들과 형제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타우-USA 에 출판되는 여러 글들을 통해서도,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실을 통해서 (미국)국가평의회에서는 형제회를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여러 형제회에서 형제회에 대한 주제들이 양성의 주요 토픽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만족할 만 일이다.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 있는 쌍방향식 지도를 통해 각 형제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지난 5년간 5개의 새형제회가 이 지도에 추가되었으며, 오는 1월에 괌에서 성 빠드레 비오 형제회의 설립을 포함하여 2020년에 더 많은 형제회가 증가할 것이다.

프란치스칸 가족의 통합 구성원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회 1회 및 울수 3회와 특별히 밀착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영적, 사목적 보조는 상급 지휘권이다.

지난 8월에는 3일간의 국가형제회 리더십 미팅에서 프란치스코회 여러 교구장님들, 재속 프란치스코칸들을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영적보조자들로 모인 완전한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모임이 있었다. “생명을 주는 화합 – 논의와 식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모임은 미주 영보 회의가 지원하였다. 모두 하나된 가족으로 생명을 주는 화합을 찬양하고 인식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전례 없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나눌 수 있었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 문들은 열려 있었고, 초대장은 보내어 졌고, 생각들을 나누었다. 우리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이 미팅에 관한 최종 보고서는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수도 3회 형제 자매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또한 성 프란치스코를 좋아하는 성공회 성 프란시스 수도회 형제자매들, 개신교 형제자매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적 삶을 또한 풍부하게 만든다. 그리고 프란치스칸 연맹과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그들도 2020년 6월에 있는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에 많은 미주 프란치스코자들을 초대할 것이다.

(미주)국가 형제회의 목표는 광범위하고, 보편적형제애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로서, 이세상에 희망을 주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과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있다. 이것은 곧 불우한이웃들, 소외된 이들, 부정 대우받는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안에서 그리고 창조물 보존에서 반영이 된다. 우리는 태양의 찬가를 노래하며 산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새로운 회칙, 새로운 화합,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작의 이 여정은 벌써 시작했다. 지난 40년동안에는 주요한 구조는 만들어졌고, 지금은 진전의 궤도에 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위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궤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며, 이것이 실현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린다.

새로운 회칙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전세계적인 프란치스코회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화합을 하였다. 새로운 비전은 청년들, 양성, 정평창을 다룬 회의에서 도 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다시 새로 시작하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성이 있다. 새로운 회칙의 전달은 결단력이 있었고, 멋진 순간이었고 그리고 은총의 이 순간은 시즌으로 연장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성령을 받아 영적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가는 여정은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